

한라시론



진 관 훈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

헌마공신 김만일

김만일(金萬鎰, 1550~1632)은 정의현 의귀리 출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594년 군마 500필을 헌납하여 국난 극복에 공헌했다. 이후에도 1600년(선조 33), 1620년(광해 12), 1627년(인조 5)에 1300여 필의 말을 나라에 바친 공이 크다. 만일 공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전쟁 수행에 꼭 필요한 군마(軍馬)를 자진하여 바쳤다. 이 공로로 1620년 정2품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1628년, 종1품 '승정내부'에 제수되었다. 광해가 김만일에 벼슬을 내리자,

“바다 가운데 후미지게 위치한 섬에 사는 일개 말 장사꾼에 불과한 백성에게 분수에 벗어나는 벼슬로 대우하니 사람들이 모두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며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임란발발 보름 만에 의주를 도망간 국왕 대신 세자가 의병들과 함께 왜군에 맞서 죽음을 다해 나라를 지켜냈다. 이를 계기로 무능과 무책임의 아이콘 선조는 광해를 세자가 아닌 군주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다. 이로 인해 당시 사헌부와 사간원은 물론 사관(史官) 조차, 광해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했다. 광해의 각별한 보호를 받았던 김만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에게 모함하고 박해로 고초를 겪게 하였으며 석연찮은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이 별인 일이다.

국난발발 보름 만에 백성과 도성을 버린 채 여차하면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의주로 옮긴 국왕과 그의 신하들은 도대체! 군주를 대신해 동분서주, 살신성인하며 겨우 나라를 구한 세자 광해, 해전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이순신, 울곡의 ‘십만양병설’처럼 단지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당시 육상전 핵심 전력인 말을 나라에 헌납한 김만일, 등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결코, 이성적이지 않았다. 국난을 이겨내 민심을 얻은 세자를 시기·견제함은 물론, 구국의 성공을 갖은 모함과 박해로 관직 박탈하며 온갖 수모를 안겼다. 하물며 유배의 섬에서 말이나 키우던 평범한 제주 사람이 도망친 양반보다 더 국난 극복에 공헌했다는 ‘변방의 역사’를 도민이 나서 체계화해야 한다. 이를 콘텐트화해 확대 보급하는 일은 그다음이다.

지 고물가와 ‘바가지’를 빚대어 나온 말이지만, 이 대목에서 묘한 기시감이 든다. 그 후손이라면 제주에 오기 싫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동네 심방 안 알아준다”라는 제주 속담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알찼다”라는 시집살이 설움을 말하고 있다. 역사적 상상력, 스토리텔링 운운하며 과장·미화·왜곡 말고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에 기록된 사실(史實)을 기본으로 김만일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정립하여야 한다. 먼 탐라도에서 말이나 키우던 평범한 제주 사람이 도망친 양반보다 더 국난 극복에 공헌했다는 ‘변방의 역사’를 도민이 나서 체계화해야 한다. 이를 콘텐트화해 확대 보급하는 일은 그다음이다.

사설

APEC 회의 분산개최 명분·실리 다 챙겨야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명분과 실리를 찾는 2라운드를 치르고 있다. 정 부가 장관회의 등을 제주와 인천에서 분산 개최키로 하면서 배경 되는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제주도는 최근 외교부와 의 면담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장관회의를 비롯 도정의 핵심 정책인 탄소중립과 관련한 회의 배정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가 7~9월 중에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선 회의별 개최 일정과 개최지가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목표는 통상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의 개최다. 외교부와 의 면담을 통해 요청한 가운데 외교부도 비공식 일정으

로 제주방문에서 의견을 수렴했기에 어느 정도 소통은 이뤄진 셈이다. 두 장관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분야별 장관회의에서도 규모가 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5년 APEC 정상회의 당시에도 제주도는 개최지인 부산을 대신해 두 장관회의를 유치했다. 20년 전엔 부산과 제주에서만 열렸는데 이번엔 인천도 포함되면서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의 의지만으로 두 장관회의의 개최지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개최지 확정 때까지 대정부 설득 등 할 수 있는 노력이 유일한 수단이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도정이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해당 논의의 플랫폼으로 제주가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성공법으로 승부해야 한다.

편집국 25시

중국관광객 무질서까지 늘어서야...



송 문 혁
편집부 기자
smhg1218@ihalla.com

지난달 17일 ‘길거리에서 중국인이 똥을 싸고 있다’는 엽기적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중국인은 이미 사라졌지만 한 제보자의 목격 사진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가 됐다. 이후 다수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연동에서 ‘외국인 기초 질서 계도·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편의점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어 커뮤니티에

서 공분을 사는 등 끊임없는 논란이 진행 중이다. 지난 주말 근처 이마트에서도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계산하면서 무언가 잘되지 않자 계산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또한 제원APT 일대 거리를 걷다 보면 간판들도 다 중국어로 돼있어 여기가 제주도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중국관광객들이 늘면서 제주도의 관광 수입이 증대했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일부 관광객들의 행위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들의 무질서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건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왔기에 단기 단속으로 끝나선 안된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나서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책임감 있게 기초질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뉴스-in

도, 드론 활용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자연재난·우주모빌리티와 협업 ‘1만명 이상 안전 관리 철저’
○...제주도가 각종 재난 예방을 비롯해 태풍 피해 현장 확인, 실종자 수색, 인과 관리 등 재난 발생시 드론을 적극 활용한 실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
도는 1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자연재난과와 우주모빌리티와 간 협의회의를 열고 기존의 고정식(CC(폐쇄회로)TV) 관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난상황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김관원 제주시장이 오는 13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워터밤 제주 2024’를 앞두고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
김 시장은 10일 간부회의에서 ‘워터밤 제주’에 최대 1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규모 인원이 한 장소에 모이고 고압의 물을 활용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관광객 이동 동선별 위험 요소 제거, 무대 등 전기 시설 점검, 유관 기관과의 현장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
이와 함께 이번 주말 전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도 지시하면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지휘 체계, 자원 투입 계획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 전선희기자

농업경영비 부담 전국 최고, 농가 빚만 는다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이 인상되고, 영농자재비 등이 오르면서 제주 도내 농가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 걱정이다. 도내 농가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영비 부담에서 허덕이고 있다.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평균 23.8%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10.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도내 농가당 농업경영비는 4813만원에 달했다. 전국 평균(2677만9000원)과 비교해보면 배 가까이나 많다.
농가들은 농사를 지어도 돈벌이는 별로 안되고, 부채는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도내 농가 평균 부채는 9448만원으로

전년(9165만원) 대비 3.1% 증가했다. 머지않아 농가 부채 1억원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농업경영비가 급증한 주요 원인 가운데 광열비가 있다. 실제 전기요금과 기름값을 다한 광열비는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린 2022년부터 크게 늘고 있다.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도내 농가들도 차츰 스마트농업, 시설농업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영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농사용 전기로 부담은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농가의 현실이 답답하고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농업이 갖는 중요성, 공익성을 감안하면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제주도정은 물론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6월 28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4년 9월 3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7월 11일
주식회사 와이노타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44(서귀동)
사내이사 나효우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락이]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064)725-0993

가족묘지 문중묘지 허가대행
벌초대행 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 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리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AK약백도라지연구소